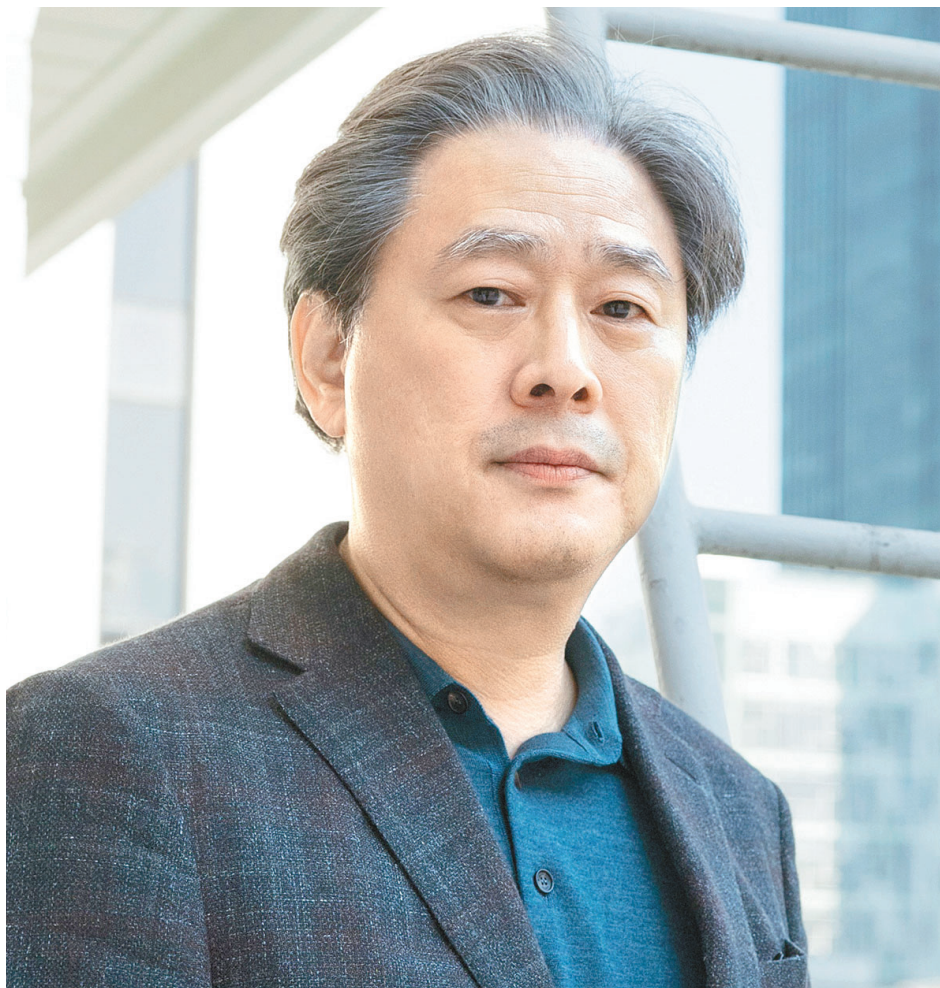


“베드신 없이 에로틱…고전적 사랑 담고 싶었죠”

기교·주장·메시지 다 빼고 제작
박해일·탕웨이 탁월한 케미 감탄
감독상 보다 연기상 기대했는데…
‘주인공 헤어질 결심 하게 되는가’
정서경 작가 질문에 제목 못했죠



영화 ‘헤어질 결심’은 파격적인 베드신 없이도 “남녀의 아슬아슬하고 에로틱하고 분위기”로 꼭 채워졌다. 박찬욱 감독은 그만큼 순수하고 고전적인 ‘어른들의 사랑 영화’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 CJ ENM

“폭력과 노출.”

박찬욱(59) 감독의 영화에 늘 따라붙던 단어들이다. 악순환하는 사적 복수의 비극성을 담아낸 ‘올드보이’부터 두 여성의 농도 짙은 정사까지 담아낸 ‘아가씨’에 이르는 박 감독의 작품은 호평 속에서도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29일 개봉하는 11번째 장편영화 ‘헤어질 결심’은 완전히 다르다. 폭력과 노출을 배제한 ‘진짜 어른’의 사랑을 그려냈다. “고전적이고 우아한 사랑을 그린 순수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는 박 감독은 “여기서 ‘순수’라는 건 동심의 세계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정치적 메시지나 주장 등을 포함하지 않고, 기교를 제외한 최소한의 영화적 구성만으로도 감흥을 이끌어내려 했다”고 강조했다.

● “섹수열한 분위기는 정신적인 것”

이번 영화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박 감독은 사실 주연 탕웨이와 박해일의 연기상을 더 바랐다.

“탕웨이가 스케줄로 인해 폐막식을 겸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굉장히 초조했다. 만일 여우주연상을 받으면 누가 대리 수상해야 할지 회의까지

했더니, 혹시나 해 탕웨이에게 수상 소감을 문자로 보내달라고까지 했다. 시상식 전까지 탕웨이가 소감을 보낸다면 박해일이 대신 받아 읽고, 아니면 제가 대리수상하기로 했다.(웃음)”

그만큼 두 배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남녀주인공의 완벽한 케미스트리(호흡)는 오롯이 이들의 “뛰어난 연기력”으로 완성됐다. “자상하기 짝이 없는

두 사람”은 촬영 내내 “늘 서로에게 감동”하며 연기했고, 파격적인 베드신 없이도 “남녀의 아슬아슬하고 에로틱하고 분위기”를 끝까지 끌고 갔다고 박 감독은 평가했다.

“섹수열한 느낌을 위해 관능적인 장면을 구사하거나 배우들에게 특정한 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관객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건 ‘에로틱’ ‘섹

시’ 등 분위기가 육체가 아닌 정신적인 것에서 오는 거라는 증거이다. 육체적 터치 없이도 사랑과 관심만으로 성적인 즐거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은…”

영화나 TV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접한다는 박 감독은 올해 초 공개한 단편영화 ‘일장춘몽’에 안무가로 참여했던 맨스텝 프라우드먼의 모니카와 또 한 번 협업했다. 영화에 삽입된 가수 정호희·송창식의 ‘안개’ 뮤직비디오를 통해서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팬으로서 ‘일장춘몽’ 때 ‘모니카 쌤’을 꼭 안무가로 모시고 싶었다. 현장에서 프로페셔널한 빠른 결정과 예술적 판단, 헌신성 등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또 한 명의 “영화적 동지”가 있다. 2005년 ‘진절할 금자씨’부터 줄곧 함께 시나리오를 써온 정서경 작가이다. ‘헤어질 결심’이라는 쓸쓸하면서도 인상적인 영화 제목 역시 그와 나눈 대화에서 나왔다.

“함께 각본을 쓰던 정 작가가 ‘그럼 이 장면에서 주인공이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건가요?’라고 물었는데, ‘헤어질 결심’이라는 말에 확 꽂혔다. 좋은 제목이라 생각했다. 주변에선 ‘너무 독립영화 제목 같다’고 걱정을 했는데, ‘독립영화 제목이 따로 있나’ 싶어 오히려 황당했다. 우리의 결심은 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지 않나. 결심이 곧장 실패로 연결될 수도 있다. 관객이 능동적인 상상을 하고 참여하게 만드는 바람직한 제목이라 생각한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연예뉴스 HOT 5

장나라, 6세 연하 촬영감독과 비공개 결혼



장나라

배우 겸 가수 장나라(42)가 6살 연하의 촬영감독과 26일 결혼했다. 장나라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양가족들과 친지,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장나라는 남편과 한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인연을 맺은 후 2년 가까이 교제했다. 2001년 1집 ‘눈물에 얼굴을 묻는다’를 발표하고 가수로 데뷔한 장나라는 ‘고백’, ‘스위트 드림’ 등 히트곡을 냈고, 이후 배우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명랑소녀 성공기’, ‘황후의 품격’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탐견:매버릭’ 개봉 4일만에 100만 돌파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탐견: 매버릭’(탐견2)이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26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탐견2’은 전날 하루 전국 1858개 스크린에서 47만2000여 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108만 7000여 명을 넘겼다. 영화는 전설의 전투기 조종사 매버릭(톰 크루즈)이 미국 해군 전투기 훈련학교 교관으로 발탁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1986년에 나온 영화 ‘탐견’의 후속편이다. 톰 크루즈를 비롯해 마이즈 델러, 글렌 포웰, 제이 엘리스 등이 주연했다.

결그룹 에스파, 데뷔 후 첫 대면 팬미팅

결그룹 에스파가 데뷔 후 첫 대면 팬미팅을 연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스파는 7월 30일 오후 6시 서울 SK올림픽 핸드볼경기장에서 대면 팬미팅 ‘마이 싱크, 에스파’(MY SYNK, aespa)를 열고 팬들과 만난다. 이번 팬미팅은 2020년 11월 데뷔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내 대면 팬미팅이다. 에스파는 이날 무대, 게임, 토크 등을 펼치며 팬들과 시간을 보낸다. 이들은 팬미팅에 앞서 27·2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다음 달 8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각각 현지 쇼케이스를 열고 글로벌 팬미팅도 연다.

아이키 공연 당일 취소 논란…소속사 “강력 대응”



아이키

댄서 아이키가 공연 당일 취소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클럽은 아이키와 댄스크루인 ‘혹’이 공연 당일 취소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6일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는 “클럽명과 해당 행사에 대한 정보가 상이함을 확인하고 제안 받은 지 1시간 만에 출연을 고사했다”고 반박했다. 또 “계약 및 개런티 지금도 대행사와 클럽간 일반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하위사실로 아이키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 그는 JTBC ‘플라이 투 더 댄스’ 등에도 나서고 있다.

임영웅, 6월 가수 브랜드평판 1위…아이유 2위



임영웅

임영웅이 6월 가수 브랜드평판 1위에 올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임영웅이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가수 아이유와 싸이가 2위와 3위에 각각 차지했다. 임영웅이 음반과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면서 1위에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 임영웅은 트로트 가수 브랜드평판에서도 정상을 차지했다. 그는 이 차트에서 2021년 1월부터 18개월째 연속으로 1위 기록을 세우고 있다.

제이홉, 7월 15일 첫 솔로 앨범 공개…BTS ‘챕터2’ 본격 스타트

(책 인 더 박스)

1일 1곡 선공개…색다른 매력 어필
“기존 틀 깨고 성장한 모습 보일 것”



제이홉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정호석)이 다음 달 솔로 음반을 발표하고 개인 활동을 시작한다. 앞서 그룹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솔로 위주로 활동을 펼치겠다던 방탄소년단의 ‘챕터2’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제이홉은 7월 15일 오후 1시(미국 동부 기준 0시) 솔로 음반 ‘책 인 더 박스’(Ack In The Box)를 전 세계 동시에 발표한다. 앨범명은 제목에 함축된 의미처럼

“기존의 틀을 깨고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 주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제이홉은 새 음반 발매에 앞서 7월

1일 수록곡 1곡을 미리 공개하고, 자신만의 음악 세계와 색다른 매력 등이 담긴 콘텐츠를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그가 정식으로 솔로 앨범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8년 3월 발표한 믹스테이프(비정규 앨범) ‘호프월드’(Hope World)를 통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38위까지 오르며 인기를 과시했다.

또 이듬해 미국 인기 가수 베키 지와 콜래보레이션한 ‘치킨 누들 수프’를 발표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81위에 올랐다.

한편 그룹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방탄소

년단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 전폭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소속사 하이브와 부산시가 24일 부산시청에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방탄소년단이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홍보대사를 맡았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 부산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다. 향후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확정하기로 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11월 예정된 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도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경이로운 소문 2’ 새 악귀를 찾아라

유준상 등 전작 4인방 참여 확정 속
신예 김히어라 등 악귀 캐스팅 심혈

악귀와 ‘맞장’ 뜨는 초능력자들이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지난해 1월 OCN 역대 최고시청률(11%)을 갈아 치운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이 최근 시즌2의 주요 배역을 캐스팅하며 방송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방송가에 따르면 고교생 초능력자 ‘소문’ 역의 조병규를 비롯해 유준상, 김세정, 염혜란 등 전작의 주인공들은 새 시즌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즌1에 이어 악귀와 맞서 싸우는 ‘카운터’로서 각종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드라마는 방영 당시 색다른 ‘한국형 히어로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에 연출자 유선동 PD 등 제작진은 일찌감치 시즌제로 드라마를 확장시키기로 결정했다. 종영 이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이 작가가 연재한 동명의 웹툰을 기반삼아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제작진은 이야기의 중심축을 이끌어갈 악귀의 캐스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악귀 중에는 신예 김히어라도 포함됐다. 2009년부터 뮤지컬배우로 활동해온 그는 지난해 JTBC ‘괴물’을 통해 안방극장에 뒤늦게 데뷔했다. 앞서 올해 1월 tvN ‘베드 앤 크레이지’에서 액션 연기를 펼치면서 시청자의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안방극장에서는 아직 낯선 배우



OCN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이 최근 시즌2 제작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사진제공 | OCN

들을 전면으로 내세워 신선한 매력을 배가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시즌1에서도 최광일, 이흥내 등을 악귀 역으로 캐스팅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다만 촬영 시기는 가을로 미뤘다. 조병규, 김세정 등이 시즌1을 통해 안방극장 스

타로 발돋움하면서 차기작을 연이어 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앞서 각종 인터뷰를 통해 “시즌2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며 드라마에 애정을 드러내는 만큼 촬영 시기를 적극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